



글로벌 기술보험 시장의 현황과 전망¹⁾

문혜정 연구원

여약

기술보험은 건설 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손해보험 상품임. 현재 기술보험 시장은 정체기이지만 점진적인 경제 회복세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향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기술혁신은 건설 현장의 위험관리 효율성을 높여 기술보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격과 같은 신종리스크를 파생시키므로 보험사들의 심각성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보험회사는 기술보험 상품의 언더라이팅 정교화, 지속적인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통해 기술보험 관련 리스크 변화에 대비해야 함

■ 기술보험(Engineering Insurance)은 건설 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손해보험 상품임

- 기술보험은 토목 및 건축 공사 일련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담보하는 손해보험 상품으로 공사에 내재된 위험을 인수하고 건설 투자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기술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공사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물적 손해와 제3자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 등의 리스크를 담보하는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이 있음²⁾
 - 내재결함담보보험(Inherent Defects Insurance, 이하 'IDI')은 건물 완공 후에 설계, 자재, 시공 과정의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물의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기술보험 상품임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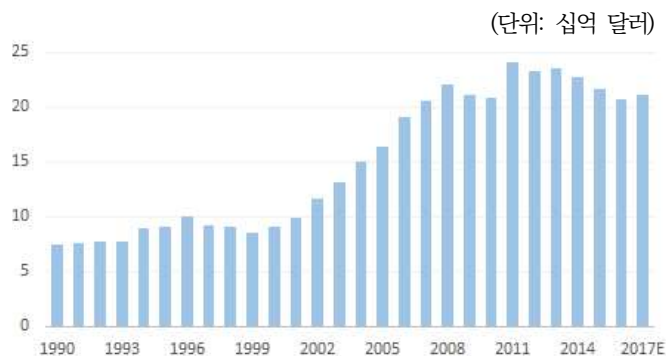
■ 글로벌 기술보험 시장은 현재 정체기에 놓여 있으나, 세계 경제의 회복세 및 구조적 변화로 인해 향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세계 기술보험 시장의 규모(보험료 기준)는 210억 달러로 전체 보험시장에서 3%의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은 2000년대에 빠르게 성장한 후 최근 5년간 정체되는 모습을 보임(〈그림 1〉 참조)

1) Swiss Re, "Constructing the future: recent developments in engineering insurance", *sigma*, No. 2/2018
 2)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이하 'CAR')은 토목공사의 비중이 50% 이상인 공사를 인수대상으로 하여 토목공사 관련 위험을 주요 담보위험으로 하며, 조립보험(Erection All Risks, 이하 'EAR')은 토목공사 비중이 50% 미만인 공사를 인수대상으로 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장치에 대한 위험을 주요 담보함
 3) 프랑스에서는 건설업자에게 내재결함담보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여 건물의 운영 및 사용주체를 보호함

- 건설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건설 투자 감소로 인해 기술보험의 수요도 감소함

〈그림 1〉 글로벌 기술보험 시장(보험료)의 추이



자료: Swiss Re, *sigma*, No. 2/2018

-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와 신흥국 및 선진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건설투자를 활성화시켜 기술보험의 수요를 늘릴 것으로 예상됨
 - 향후 10년간 세계총건설생산(Global Gross Construction Output)은 연평균 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술보험 시장(보험료 기준)은 연평균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⁴⁾
 - 또한 신흥국의 도시화 및 기반시설 투자 확대, 선진국의 노후 기반시설 재건축,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의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도 건설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한편 기술혁신은 건설 현장의 위험관리 효율성을 높여 기술보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사이버공격과 같은 신종리스크를 파생시키므로 보험사고의 심각성은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함
 - 건설기술(Constructech)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건설 활동의 전 과정에 IT 기술이 접목되고 있음
 - 드론을 이용한 공사 현장 실시간 점검, AR(Augmented Reality) 기능이 탑재된 공사용 헬멧, 무선 센서(Wireless Sensor) 네트워크를 이용한 위험감지 및 경고시스템 등의 신기술은 공사 현장의 리스크 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 빈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기기들이 상호연결 되어 통합·관리되므로 사이버공격과 같은 신종리스크 발생 시 보험사고의 심각성(severity)은 더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기술보험 상품의 언더라이팅 정교화, 지속적인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통해 건설기술 발전에 의한 기술보험 관련 리스크 변화에 대비해야 함 **kiyi**

4) 건설생산과 기술보험료 사이의 장기탄력성은 세계 및 선진국 기준 0.7~0.9, 신흥국 기준 0.7~1.2로 추정됨(경제학에서의 탄력성(Elasticity)이란 어떤 한 경제변수의 변화(%)에 대한 다른 경제변수의 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본 예에서는 건설생산 1% 변화에 대해 기술보험료가 0.7~1.2% 변화한다는 것으로 비교적 탄력적으로 반응함을 뜻함)